

**5월 18일(월) / 시34-36**

▶**내용요약:** 34편은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 블레셋인의 땅으로 망명했을 때(삼상21:10-22:2)의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그곳에서 위기를 당하자 왕 앞에서 미친 체함으로써 목숨을 구한 사건 이후 그 구원의 기쁨을 신앙으로 찬양하고 있다. 35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피하던 시절을 배경으로 하는데 특히 원수로 표현된 자들은 사울에게 자신을 포함하여 사울의 판단을 흐려 놓았던 사울의 측근을 가리킨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활동해주시도록 절박한 어조로 호소하고 악인들의 죄악 뒤를 고발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을 소원하며 찬양한다. 원수들의 사악한 실태를 고발하고 끝으로 악인과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 심판을 기원한다. 36편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고 있던 다윗이 이 땅에 존재하는 악인들의 불의한 실상을 바라보며 작시한 것이다.

▶**질문:** 다윗을 추격하며 그의 생명을 해하려 자는?(34. 35편)  
▶**생각하기:**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높이 드려야 한다. 이런 점에서 감사와 찬양은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반응이어야 한다. 우리에게 있어 최고의 자랑은 무엇인가?(시34:1-3절).

**5월 21일(목) / 시73-75**

▶**내용요약:** 73편에서 83편은 다윗시대의 성가대 우두머리 아삽의 시들이다. 73편은 이 땅에 악인이 번창하고 형통함을 누리며 모순된 현실로 인한 심한 갈등을 소개하고 갈등가운데서도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고 더욱 성숙한 도리를 깨닫게 된 사실을 적고 있다. 74편은 아삽이 살던 시대가 아닌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과 성전이 멸망하게 된 위기상황(B.C. 586)에 직면하여 민족의 구원을 호소하며 지은 시로 아마도 아삽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쓴 시로 추정된다. 75편은 세상을 공의로 통치하시며 재판하시는 하나님께 대해 찬송을 드린 감사의 시이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날이 임박한 사실, 그날에 악인은 낮아지고 의인은 높아질 것 등이 노래되고 있다.

▶**질문:** 다윗시대 예루살렘 성전 성가대 우두머리는?(73편)  
▶**생각하기:**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고난과 아픈 현실은 무조건 g해(害)가 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며 선(善)을 이룰 뿐이다(롬8:28).

**5월 24일(일) / 시107-108**

▶**내용요약:** 107편은 시편 가운데 마지막 권인 제5권을 시작하는 부분이다. 5권은 그 어느 권보다 감격에 찬 영혼에서 터져 나오는 찬양과 감사의 내용이 많이 언급되고 있다. 그 중 107편은 바벨론 포로 귀환을 배경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시인은 감히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초월한 은혜를 받았음을 감격하여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찬양하고 있다. 본시를 요약하며 찬양에의 권유(1-3절), 찬양의 이유(4-32절), 정직하고 지혜로운 자는

**5월 19일(화) / 시42-45**

▶**내용요약:** 시편 제2권(42-72편)의 첫 번째 시인 42편은 다윗이 사울의 박해 혹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성전예배 마저 드릴 수 없던 상황에서 쓰인 탄식의 시이다. 다윗은 주의 성전 사모하기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게 사모하는 것에 비유한다. 43절에서 다윗은 단순히 당면한 고난을 헤쳐 나가고자 하는 차원에만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 악인의 손에서 완전한 구원을 얻게 해달라는 간구와 고백을 적고 있다. 44편은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 마카비 시대(BC 166-160) 이전 한 경건한 신앙인의 시로 추정되는데 애매하게 고난 받는 현실에 대한 비탄과 함께 하나님의 도움과 위로를 호소하는 시인의 절절한 신앙이 잘 나타난다. 45편은 이스라엘 왕의 결혼식 때 부르던 축혼 시로 결혼식에 임하는 왕의 위엄과 존귀, 왕비의 아름다움을 적고 있다.

▶**질문:** 다윗은 성전예배를 드릴 수 없는 자신을 무엇에 비유하나?(42편)  
▶**생각하기:** 다윗은 고난의 상황에서 지난날의 기쁜 신앙생활을 가슴 저리게 회고하며 하나님이 성전에 나아가기를 갈급해하였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다윗처럼 갈급해 하는가?(시42:1-5절)

**5월 22일(금) / 시88-89**

▶**내용요약:** 88편은 고라자손의 성가대를 지휘했던(대상6:33, 37) 에스라인 헤만 의 시로 시편 가운데 가장 애조 띤 비탄 시로 알려지고 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함몰되어 가는 듯 한 극한 슬픔 중에 있는 자가 하나님께 구원을 열망하며 부르는 시이다. 본시는 밤낮 끊임 없이 주의 구원을 호소하는 시인의 절규(1-2절), 점점 더 짙어지고 있는 죽음의 그림자를 바라보며 안타깝게 부르짖는 시인의 호소(3-9절),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께 대한 시인의 애절한 간구(10-18절)를 소개한다. 89편의 배경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르호보암 통치 시에 애굽 왕 시삭의 침공을 받았을 때로 보여진다(왕상 14:15-18). 시인은 본시를 통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견고성에 관해 노래하고 있다.

▶**질문:** 시편 가운데 가장 애조 띤 비탄 시는 몇 편인가?  
▶**생각하기:** 숨이 끊어질 듯 한 육체적 고통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주께 간구하며 주님으로부터 문제의 해결을 받으려는 시인의 믿음, 정녕 이것이야말로 기도하는 자의 올바른 자세이다(시88:1-9절).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33-43절). 시108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큰 권능을 의지하는 다윗의 찬양이다. 특히 본시는 각각 다른 두 편의 시가 합쳐져 새로운 한편의 시가 된 혼합 시이다. 앞선 1-5절은 57:7-11절을 따왔고, 뒤의 6-13절은 60:5-12부분을 따와 서로 결합함으로써 완전한 한 편의 찬양시를 구성한다. 1-5절은 구원과 승리를 이미 받은 것으로 확신하는 시인의 찬양이며, 6-13절은 구체적으로 이 역사 속에서 실현되어야 할 승리에 대한 강렬하

**5월 20일(수) / 시49-51**

▶**내용요약:** 마치 한편의 설교를 연상시키는 49편은 물질의 유연함과 물질을 좇는 자의 어리석음을 교훈적으로 보여준다. 지혜로운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일 것을 당부하고, 물질의 유한성과 일시성, 물질을 좇는 자의 최후를 적고 있다. 50편은 레위지파로 구성된 예루살렘 성전 성가대의 대장이었던(대상16:4-5)아삽이 노래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예배 자세를 중심 주제로 하고 있다.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요청, 그릇된 제사를 삼가도록 명령함, 주의 말씀을 거역하는 외식 자들을 책망함이다. 이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녕 기뻐하시는 예배자세가 무엇인지 교훈한다. 51편은 다윗 일생에 가장 큰 오점이었던 우리아 살해와 그 아내 밧세바와의 불륜사건을 배경(삼하12)하고 있다. 선지자 나단의 추궁, 자신이 죄과를 고백하고 참회하는 장면, 건널 수 없는 무계감에서 어쨌든 벗어나고픈 다윗의 조건부 서원이 담겨있다.

▶**질문:** 시50편은 올바른 예배의 요소로 무엇을 말하는가?  
▶**생각하기:** 외식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예배의 형식을 갖추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감사와 정성이 없다.

**5월 23일(토) / 시90-93**

▶**내용요약:** 90편부터 106편까지는 시편의 4권에 해당한다. 그중 90편은 출애굽 영웅이었던 모세가 남긴 유일한 시다. 출애굽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범죄로 인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며 민족적으로 크나큰 위기를 맞이해야 했던 때를 배경하며 이때 모세가 민족의 구원을 호소하며 기록한 시이다. 91편은 46편과 유사한 시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근거로 한 기쁨과 소망을 노래한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시인이 전능자의 보호 아래 있는 자의 안전함을 확신하는 장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절대보호를 약속하시는 장면을 소개한다. 진실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어떤 안전 보장책으로도 자신의 영혼과 육체를 능히 보존하지 못한다(요15:5).

▶**질문:** 시편 중 모세가 남긴 유일한 시편은?  
▶**생각하기:** 풀과 꽃처럼 유한하고 연약한 것이 인생일진대, 세상에서 연약한 우리가 자랑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우리 인생이 살아생전에 추구하고 지향해야 할 바가 무엇이겠는가?(시90:5-12절).

간구라 하겠다. 진정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아니겠는가?(히11:1).  
▶**질문:** 두 편의 시가 합쳐져 새로운 한편의 사가된 혼합 시는?  
▶**생각하기:** 세상은 험한 자들, 사악하고 간교한 자들의 활동 무대인 거산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정녕 보이지 하나님의 손이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신다(시107:10-12절).